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1서 2:1-6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가 563장 / 예수 사랑 하심을
(통일찬송 411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김훈테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송 620장 /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은강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7:1-34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한 서원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 있는가. 잘 준비된 찬양을 듣기 위해, 한 주 동안 도움이 될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맞다.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릴 각오가 전제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려면 예배순서나 목회자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전심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목말라해야 한다. 훌륭한 예배 팀, 세련된 진행, 멋진 악기와 오디오만으로 예배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 정말 좋은 예배를 만드는 성도, 풍성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준비하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쓸 데 없이 탐하고 하고 불평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마귀에 당대히 맞서 이기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만 머무르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시편 34편 20절
"그도 죽은 자의 유해를 구원하시리라..."
"모든 영혼의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모든 영혼의 영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달콤한 유혹은 끔찍한 덫

어떤 사람은 악을 피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한 것이 아닌, 끔찍한 덫일 뿐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사이가 가로 막히게 되고 나는 점점 망가진다. 점점 만족하지 못하고, 유혹을 따라 더 크게 죄를 짓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옥에 가 버리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죄를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먼저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더 많은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악을 피하며, 내 약한 부분을 마귀가 흔들지 않도록 주님께 지켜 달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의 가장 약한 신앙의 고리는 무엇인가? -물욕과 명예욕, 분냄과 시기, 불평과 불만, 이간질과 경솔함, 교만과 우월감, 고집과 고정관념, 좌절과 열등감, 게으름과 안일, 외식과 강박함, 불안과 우울, 거짓 만족과 소망 없음. 나는 "원래 그렇다."는 자기 변명은 접고 예수님께 나아가 힘을 얻어야 한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라고 솔직히 말하면서, 유혹을 주는 마귀의 공격에 담대히 대적해야 한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씨앗은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무도한 죄인도 작은 죄의 씨앗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라고 외쳤던 것이다.

중독이 되버린 견고한 죄의 진은 한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계속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점점 자유케 하실 것이다. 매일 성경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고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 묵임은 점점 사라지고, 진정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12월은 결산과 예산의 기간입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 사역팀(구민, 오정은, 최선운/재정, 김훈태/행정, 유동숙/감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며 함께 전진합니다.
5.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6.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연말 연시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12월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성찬예식 & Oikos 셀모임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재정비

♥성령 충만♥ 오준하(12/2) 김훈태(12/19) 박다현(12/23) 홍은성(12/26) 유덕하(12/28) 최선운(12/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12/8	12/15	12/22	12/29
		고순제전도사	최선운집사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섬김	금요일예배기도	12/13	12/20	12/27	1/3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구 민집사
이	주일헌금위원	12/8	12/15	12/22	12/29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성장을 위한 성도의 자아상 / 요한1서 1:5-10**

우리는 은밀한 죄와 부끄러운 모습은 최대한 감추고 은사나 직분 등의 자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다. 이를 뛰어넘어, 죄인이되 용서받은 죄인이며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상과 사탄은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빛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 가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 요한1서 2:1-6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 요한1서 2:1-6

과연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며 '극도의 친밀함을 전제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친다.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의 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순간부터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막 하나님에 관해 알기 시작한 것이므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나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또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다. 성경 인물과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형제의 신앙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과 체험을 통해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에 관해 진짜 아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넘치도록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사랑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금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 더 알수록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살아 있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로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December 8,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신앙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나눔의 달

믿음성장/신앙생활 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